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코로나 19 감염증 확대방지를 위한
시민 여러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

4월 7일에 카나가와현을 포함한 7개 도부현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도시부를 중심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해 본시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본시에서는,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등의 중지나 연기, 시의 시설의 휴관 등 다양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됨에 따라 후지사로서 코로나 19 감염증 대책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정부나 현과 연계해 감염 확대방지를 향해 대응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밀폐공간」 「밀집장소」 「밀접장면」을 피해, 행동하심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또한, 정부·현·시의 정보에 근거해, 냉정한 판단과 행동을 해주십시오. 코로나 19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에게는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생각을 함께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8일
후지사로서 시장 